

## ‘너’를 통해 드러나는 김수영의 정신적 지향 연구\*

김 희 주\*\*

### 차 례

- |                                     |                                  |
|-------------------------------------|----------------------------------|
| 1. 들어가기                             | 4. ‘나’의 투영된 자아, 일치를 갈망하<br>는 ‘나’ |
| 2. 김수영 시의 ‘너’의 의미                   | 5. 나가기                           |
| 3. ‘나’를 사유케 하는 ‘너’, 강화되는<br>‘나’의 정신 |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수영의 시 속에 자주 등장하는 ‘너’에 대한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김수영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이 ‘전기의 모더니즘, 후기의 참여시로 양분’하여 그 변모과정을 추적하고 시 전체를 일관하는 정신을 찾고 있으나, 그의 시에는 전기 시와 후기 시와 상관없이 ‘나’에 대한 끊임없는 사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의 시에는 그 ‘나’에 대당되는 ‘너’가 자주 시에 등장한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2단계 BK2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의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 ‘너’의 존재는 ‘반란성’의 존재로 혹은 ‘불온성’의 존재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현대사회에서의 김수영 ‘개인’의 운명과 체험에서 드러나는 존재들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모순이 클수록, 그 모순의 수용을 드러내는 개인의 내면은 정체성의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분열의 극복을 김수영은 개인과 개인과의 속박을 통해 주로 드러내는데, 이 ‘너’의 모습은 비판의식을 결여한 채 형식주의에 빠져 있던 한국 모더니즘의 한계의 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은 ‘나’와 ‘너’의 통합된 일치 없이 존재가 불가능하다. ‘너’를 통해 시인은 현실을 비판하고 자아를 돌아보고 옹호하며, 세계와 연계하여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러므로 ‘너’의 존재는 시인의 삶에서 소통의 문제라기보다 존재자체의 문제이다.

김수영의 초기 시 <공자의 생활난>에서 대응되는 ‘너’와 ‘나’는 상실되어가는 자아의 정신지향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가 주는 시선의 지점에 놓여 있는 대상 ‘너’는 그의 정신적 의지를 어떤 형상의 지점에 가도록 사유케 하는 ‘너’이다. 이와 더불어 <토끼>와 <달나라의 장난> 또한 자아가 추구해야 하는 무한한 과제와 그 의지를 긴밀하게 ‘너’를 통하여 연결해주고 있다. ‘너’로 호출된 토끼는 현실의 무분별한 수용을 거부하고, 주체성을 지닌 자아로서 존재하려는 시인의 열망을 강화하는 대상이 되며 ‘팽이’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존재한다.

<풍뎅이>에서는 현실에서 타협하려는 ‘나’와, 내면에 극복의지를 가지고 있는 ‘너’가 함께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또 다른 자아’로서의 ‘너’가 호출된다. 앞에서 전개된 ‘너’가 ‘나’를 사유케 하고 나의 정신적 지향을 강화시켜주는 ‘너’로 호출된다면, 여기서의 ‘너’는 ‘투영된 자아’로서 호출된다. ‘나’와 ‘또 다른 나’의 통합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때 나의 의지는 결국 극복의 맥락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너’의 호출은 ‘나’의 의지를 강화하기위한 매개물이라기보다 나의 의지를 더 드러내게 하려는 맥락으로 호출되었다.

<너를 잃고>에서의 ‘너’를 찾으려는 시도 또한 결국은 ‘나’를 찾으려

는 의도이며, <더러운 향로> 또한 ‘너’인 향로와 ‘나’는 함께 일치되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데 이 둘의 일치가 결국 현실을 함께 견디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 급변하는 현실을 ‘너’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시인의 시선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그 시적 매개체인 ‘너’를 통하여 작가의 내면세계를 접근해 보는 것은 김수영시의 연구영역을 더 확장하는데 의미 있는 일이다.

주제어 : 김수영, 너, 정신주의, 시선, 현실, 모더니즘, 자아, 근대, 현대시, 시적 자아, 근대문명, 공자의 생활난, 풍뎡이, 땡이, 더러운 향로, 달나라의 장난, 정신적 지향

## 1. 들어가기

전통적 서정주의의 시가 다분히 음악성 위주의 시적 표현양식이었다고 한다면, 모더니즘 계열의 시는 감정과잉의 시어들을 절제, 배제하고, 보다 지적인 어조의 현대적 이미지들을 구사하는 것<sup>1)</sup>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모더니즘 계열의 확실한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고 나름의 형이상학을 개척한 시인으로 김수영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모더니즘 시의 무정신성을 극복하고 문학이 마땅히 획득해야 할 하나의 정신성으로서의 근본 원리, 즉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치열하게 추구<sup>2)</sup>하였던 시인이다. 그래서 그는 근대라는 죽음의 공포를 직시하고 이에 대응해 가는 새로운 주체의 모습으로 우리 시사의 한 면을 채우는 시인이다. 그러므로 그가 보여주는 새로운 주체는 세계와 대응하는 자아의 내면을 끊임없이 갱신해 감으로써 근대의 동의어인 죽음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생성

1)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 편저, 『195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87, 93쪽.

2) 같은 책, 93쪽.

된다<sup>3)</sup>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적 삶이란 산업 정보 사회의 온갖 모순들이 욕망의 거품처럼 부글거리는 현장이라고 최동호는 말한다. 그는 1990년 3월 『현대시학』에 「서정시와 정신주의적 극복」이란 글에서 정신주의 시의 계보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1980년대 말 우리 시의 네 가지 약점을 순수주의, 민중주의, 달관주의, 파괴주의라고 규정하며 우리 시의 나아갈 길을 ‘서정시와 정신주의적 극복’이라는 명제로 요약하였다. 그는 20세기를 지배한 서양의 합리주의, 과학주의는 감각적이고 말초적이며 기계적이고 일회적이며 소모적인 것이 팽배하는 시대를 낳았고 이런 시대의 앞길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문학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서구적인 것을 충분한 자양분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주체적인 자기 확립을 위한 하나의 모색의 출발점으로 정신주의 문학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정신주의란 것이 종교를 아우르는 ‘정신적인 것’으로만 이해되면 오히려 문학의 긴장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문학에서 시가 비극적 세계의 어둠과 만나, 실패하고 절망하고 또 극복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 정신주의는 거기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수영 시는 그러한 정신주의가 지각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김수영의 시는 한갓 기교나 재치로서의 모더니즘을 거부하고, 하나의 정신으로서의 모더니즘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정신주의와 연결된다고 본다. 전후 남한시의 전개 양상은 전통주의 혹은 전통에 대한 단절과 쇄신의 체험을 담고 있는 모더니즘 그 어느 쪽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현실도피의 문학, 즉 도피의 미학을 주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6·25, 4·19, 5·16등의 잇단 격동기의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김수영의 시는 도피가 아닌 극복의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극복의 기저에는 김수영이 바라보는 현실과 근대에 대한 작가적 시선이 존재한다. 김정훈<sup>4)</sup>

3) 황정산, 『김수영』, 새미, 2002, 194쪽.

은 그의 작가적 시선은 항상 당대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행위에 집중되는데 이때의 사람은 집합적 개념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개별적·독자적 소우주로서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수영은 김경린을 위시한 당대의 모더니스트들처럼 모더니즘을 언어나 형식 차원의 새로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sup>5)</sup> 현실에 대한 ‘반란성’은 후기에 ‘불온성’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의 모색을 시도한다. 김수영은 불온성과 결합하여 사유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가 소통하는 세계의 지향점이 비판보다 극복에 있다는 것을, 물질보다 정신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너’라는 2인칭 대명사에 투영하고 있다. 즉 ‘너’는 단순히 시적 언어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김수영 자신의 정신적 지향을 드러내는 ‘너’로 호출되었다는 점이다.

## 2. 김수영 시의 ‘너’의 의미

『김수영전집1』에는 그의 유고시 ‘풀’을 포함한 총 170여 편의 시들이 있다. 여기에서 거의 삼분의 일에 해당되는 총 50여 편에는 ‘너’로 지칭되는 대상이 존재한다. 그 시들에는 끊임없이 현실을 사유하는 시인의 모습과, 반성과 초월론적 성찰이 담겨 있으며, 그 반성과 성찰은 ‘너’를 경유하여 드러나는 면모를 보여준다.

‘나’와 ‘너’의 존재는 전기 시와 후기 시에 모두 나타나는데, 전기 시에는 ‘너’에 대한 범위가 사물에까지 지칭되는 경향이 강하며, 후기 시에 이르러서는 ‘너’의 존재가 점차 사람에게 한정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너’를 통해 드러낸 그의 시적 전개는 그가 비교적 생활의 안정기에

4) 김정훈, 「김수영 시 연구」, 『김수영』, 황정산편, 2002, 68쪽.

5) 류찬열, 『현대 시인 연구』, 제이앤씨, 2007, 47쪽.

접어든 1955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분포도가 거의 반반이나 1960년 이후부터는 사물로 대당되는 ‘너’라는 존재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수영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이 ‘전기의 모더니즘, 후기의 참여시로 양분’하여 그 변모과정을 추적하고 시 전체를 일관하는 정신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 김수영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는 미흡<sup>6)</sup>하다. 그러나 ‘너’의 존재는 현대사회에서의 김수영 ‘개인’의 운명과 체험에서 드러나는 존재들로서 김수영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지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 ‘너’의 모습은 비판의식을 결여한 채 형식주의에 빠져 있던 한국 모더니즘의 한계의 한 면을 드러내기도 하며 자아의 극복의지를 독려하는 대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모순이 클수록, 그 모순의 수용을 드러내는 개인의 내면은 정체성의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분열의 극복을 김수영은 개인과 개인과의 속박을 통해 주로 드러내는데, 이 ‘너’의 모습은 그러한 김수영의 내면을 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너’는 자유적인 ‘너’이며, 이인칭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극복할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거나 혹은 ‘나’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공존하는 존재이다. 때문에 ‘너’는 일치를 갈망하기도 하며 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즉 ‘너’를 통해 시인은 현실을 비판하고 자아를 돌아보고 옹호하며 세계와 연계하여 타협의 실마리를 찾으려 시도한다. 이러한 김수영 시의 ‘너’의 존재는 갈등과 통합의 문제로 제시되는데 그 갈등과 통합의 과정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시인의 정신적 지향이 드러난다.

‘나’를 상대하는 ‘너’의 정체는 시인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그의 의지를 더 확연하게 보충해준다. 이는 ‘너’의 존재가 그의 정신 속에서 항상 지각되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지각되는 존재를 그는 정면으로 비난하지 않고 외려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진정한 모더니즘으로 나아가려고

6) 한명희, 『김수영 정신분석으로 읽기』, 월인, 2002, 17쪽.

시도한다. 이 점이 현대성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내걸고 시와 삶, 한국의 현실을 패배가 아닌 극복으로 견뎌내려 했던 그의 시 정신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우리 근현대사의 궁극적 과제는 억압과 해방의 양날을 지닌 근대성을 주체적으로 지향하는 것이었다. 현실에 주어진 한국적 근대성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한 그 대상으로서의 ‘너’는 그러므로 김수영의 시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매개체인 것이다. ‘너’의 존재에 김수영의 시선이 가는 이유란 바로 이 때문이다.

시인은 언어로서 대상을 모방한다. 벤야민은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능력은 인간의 원초적 능력으로, 대상의 모방에 이미 대상의 극복을 내재적 목표로 갖는 변증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나’와 대립지점에 있는 ‘대상’을 김수영이 시적언어로 끌어내어 대상의 극복을 내재적 목표로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너’에 대한 ‘나’의 시선은 그러므로 자신의 정신적 의식을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적 시선이라 볼 수 있다. 이 의도적 시선에는 통합을 시도하는 ‘너’가 존재하고 자아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대립되는 ‘너’가 존재한다. ‘너’는 ‘나’의 의지를 강화하는 대상이거나 혹은 나를 투영하는 대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3. ‘나’를 사유케 하는 ‘너’, 강화되는 ‘나’의 정신

김수영의 시에서 특이하게 드러나는 ‘너’의 존재는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이 ‘어떤 것’으로 지칭된 ‘너’들은 근대적 삶에서 같이 따라갈 수 없는 존재, 혹은

---

7) 발터 벤야민,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1933)」,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도서출판 길, 2008, 211-216쪽.

‘나’를 사유케 하는 ‘너’를 대표한다. 따라서 이들은 시인의 시선에서 비판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극복의 대상, 혹은 소통의 대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험난한 현실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갑자기 드러난 대상이 아니라, 그의 내면, 즉 그의 정신에 항상 존재하는, 극복해야 하는, 도달하려 하는 대상으로 호출된다.

김수영의 모더니즘의 기저에는 옹호보다 비판이 깔려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현실비판에서 해체로 가지 않고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찾는데 노력한다. 김수영은 “시의 모더니티란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감각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성의 화염”이라고 말하며 모더니티가 담보해야 할 요건은 감각적인 기술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온 지성과 양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무분별하게 수용되는 근대에 대한 저항의식과 자유에 대한 깊이 있는 의식은 ‘너’라는 대상 내부에 의미화 되어 표출된다.

김수영의 초기 시 <공자의 생활난>은, 대응되는 ‘너’와 ‘나’를 통해 상실되어가는 자아의 정신을 지향하는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이다. 김정훈은 이 시를 시인의 ‘바로 봄8)’의 의식이 들어있다고 하였다.

꽃이 열매의 上部에 피었을 때  
너는 줄넘기 作亂을 한다.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나  
그것은 작진 같은 것이기에 어려웁다

국수-이태리어로는 마카로니라고  
먹기 쉬운 것은 나의 叛亂性일까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事物과 事物의 生理와

8) 황정산, 『김수영』, 새미, 2003, 35쪽.

事物의 數量과 限度도와  
事物의 趣味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 <공자(孔子)의 생활난><sup>9)</sup>전체 (1945)

김정훈은 시 구절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를 ‘시대’라는 큰 틀에 넣고 황현산은 그 시대의 모습을 식물의 어린 모습과 연계하여 시대의 혼란과 위태위태함을 말하고 있으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분명 김수영은 ‘나’의 시선으로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 구절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데 접이 있다. 즉 ‘시대’라는 어떤 시간과 마당에서 줄넘기 작란을 한다는 의미만으로는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다.

먼저 김수영은 줄넘기 ‘作亂’에 이중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표면적인 발음은 ‘장난’이나 기실 장난이 아니라 ‘作亂’인 것이다. 이 단어를 그다 써낸 그대로 읊긴 것이라면 그는 일부러 한자를 써서 어떤 언어의 트릭을 노린 것이다. 즉 기표로서의 음성은 장난이지만 기의는 ‘亂’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꽃’이다. ‘꽃’이 ‘열매의 상부에 핀 것’이다. 황현산은 이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호박과 같은 식물류로 들었다. 즉 꽃이 핀 후 꽃이 떨어지기 전에 생겨난 열매류로 해석하였다. 때문에 아직 완숙하지 않은 시대 앞에서 줄넘기 장난을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의 의미를 잘 관찰해보면, 이미 ‘열매’라는 단어는 ‘열매’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미 존재하는 ‘열매’ 상부에 꽃이 핀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는 아직 완숙하지 않은 시대를 의미한 것이라기보다 그 자체로 자연의 법칙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전통과 근대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기보다 뒤죽박죽으로 혼란한 상태를 보여주고

9) 김수영, 『김수영전집1』, 민음사, 2004, 19쪽.

있는 상황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장난 같으나 기실 ‘반란’인 것이다. 이 반란을 너는 ‘作亂’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듣기에는 ‘장난’ 같으나 그것은 곧 ‘作亂’이기 때문에 ‘나’는 이 위험성을 ‘반란’하는 것으로 시인의 의식을 표명한다. 여기서 ‘너’는 순간을 적당히 즐기며 현실도 바로 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주체성조차 결여되어 있는 ‘너’이다. 그러나 이러한 ‘너’로 인해 자아의 바로 살려는 정신적 지향은 확연히 드러난다. ‘너’는 시인의 지향과 대립되는 지점에 놓여있고, ‘나’는 ‘叛亂’의 입장에 있는 자아이며 일상성에 대한 객관적 비판과 반발을 드러내는 대립지점에 있다. 즉 시인에게 있어 ‘너’는 나의 근대적 삶을 사유케 하는 지점에 존재하며 이는 김수영이 자아의 내면을 드러내려는 일환으로 ‘너’를 호출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자아와 대립되어있는 ‘너’의 형상으로 인해 ‘나’는 외려 비판보다 ‘진지한 자아의 성찰’ 지점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너’와의 간극 사이에서 자아가 추구해야 하는 무한한 과제를 정하고 어느 사이 ‘너’는 사라지고 ‘나’의 의지만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인은 ‘너’의 ‘作亂’을 보면서 “바로 보려는” 의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자아가 추구해야 하는 당면한 과제와 그 의지는 <토끼><sup>10)</sup>에서도 드러난다.

토끼야  
봄 달 속에서 나에게만 너의 재주를 보여라  
너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너의 새끼를

생후의 토끼가 살기 위하여서는  
전쟁이나 혹은 나의 진실성 모양으로 서서 있어야 하였다  
누가 서 있는 게 아니라

10) 김수영, 『김수영전집1』, 민음사, 2004, 27쪽.

토끼가 서서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캥거루의 일족은 아니다  
수우(水牛)나 생어(生魚)같이  
음정을 맞추어 우는 법도  
습득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서서 있어야 하였다

- <토끼>부분(1949)

여기서 시인은 ‘토끼’를 다른 일족과 구분하고 있다. ‘너’로 호출된 토끼는 “나에게만 재주를 보여야만” 하는 ‘토끼’이며 그러므로 ‘나’에겐 특별한, 시인인 ‘나’ 앞에만 존재하는 토끼이다. 또한 ‘너’로 호출된 토끼는 “진실성 모양으로 서 있어야” 하는 의지를 강요당하는데 그럼으로써 ‘나’는 ‘토끼’를 통해 어떻게 현실을 견뎌야 하는지 사유하고 나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는 고개를 들고 서서 있어야” 하며 “너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너의 새끼들”은 “살기 위하여서는 전쟁이나 나의 진실성 모양으로 서서 있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공자의 생활난>에서처럼 시인의 근대와 자아의 관계를 바로 보려는 정신적 지향이 잘 드러나는 시라고 볼 수 있다.

‘토끼’로 지칭되는 대상인 ‘너’는 지금 자아 앞에 서 있는데 그 토끼는 ‘누가’ 아닌 ‘토끼만이 서 있어야’ 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토끼는 세상에서 습득해야 할 어떤 것도 습득하지 못한 낯선 세상에서 굴복되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토끼’는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할 지라도 “고개를 들고 서서 있어야”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는 현실의 무분별한 수용을 거부하고, 주체성을 지닌 자아로서 존재하려는 정신적 지향을 토끼를 통하여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인이 호출한 내 앞에만 존재하는 토끼가 나를 사유케 하고 나의 정신은 그러한 ‘너’를 보고 그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캥거루의 일족이나 수우나 생어와 토끼를 굳이 비교하는 것도, 그의 의지가 다른 자아와는 변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며 ‘봄 달 속에서’ ‘나에게만’ 보여주는 재주 또한 ‘너’를 통하여 현실을 이겨내는 ‘나’에 대한 특별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아의 의지이다.

시인의 이러한 의지는 <달나라의 장난><sup>11)</sup>에서도 드러난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올린다  
제트기 벽화 밑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년 전의 성인(聖人)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 <달나라의 장난>부분(1953)

이 시에서의 ‘팽이’도 줄넘기를 하는 ‘너’나, ‘토끼’의 ‘너’나 크게 다르지 않다.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 있는 이 밤”에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다”는 것은 ‘너’로 지칭되는 팽이가 나의 의지를 강화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너’라는 대상은 바로 앞에 있을 때 부르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아와 맞서거나 혹은 마주보는 대상이 된다. ‘동무’를, ‘토끼’를, ‘팽이’를 그 자체로 봐두면 3인칭으로서 대상과의 거리가 2인칭보다 멀어지지만 시인이 그들을 ‘너’로 호명한 것과 동시에 ‘너’와 ‘나’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그러

---

11) 위의 책, 32쪽.

므로 시선의 지점에 놓여 있는 대상 ‘너’는 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유케 하여 ‘바로’ 봄의 의지를 자각하게 하는 ‘너’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김수영시의 ‘너’라는 대상은 나의 극복의지와 깊이 관련되어, 함께 정신적 지향을 독려하는 자아에 대당되는 ‘너’로 존재한다. ‘너’가 그저 대립되거나, ‘너’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통합되어 그 이상의 정신적 지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수영 앞에 호출된 ‘너’는 ‘나’와 연계되어 더 강인한 정신적 지향으로 확장되며 외려 ‘나의 강인한 의식’은 ‘너’에 의해 호출되는 것이다.

#### 4. ‘나’의 투영된 자아, 일치를 갈망하는 ‘나’

김수영의 1950년대까지의 시를 살펴보면, ‘너’로 호출되는 대상이 대부분 사람보다는 동물이나 사물, 혹은 곤충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끼’<sup>12)</sup>, ‘팽이’<sup>13)</sup>, ‘꽃’<sup>14)</sup>, ‘나비’<sup>15)</sup>, ‘향로’<sup>16)</sup>, ‘헬리콥터’<sup>17)</sup>, ‘연기’<sup>18)</sup>, ‘VOGUE잡지’<sup>19)</sup> 등 그 시적 대상이 다양한데, 1950년 후반에 이르러서부터는 사물을 지칭하는 ‘너’라는 대상은 다소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며 그 부르는 대상도 ‘여편네(1961.6.3)’<sup>20)</sup>, ‘놈’<sup>(1965.10.9)</sup><sup>21)</sup>, ‘순자야’(1967.5.30)<sup>22)</sup>와 같이 그 대상이 사람으로 지칭되는 경향이 자주 보이

---

12) 김수영, 『김수영전집1』, 2004, 26쪽.

13) 위의 책, 33쪽.

14) 위의 책, 55쪽.

15) 위의 책, 73쪽.

16) 위의 책, 65쪽.

17) 위의 책, 81쪽.

18) 위의 책, 99쪽.

19) 위의 책, 341쪽.

20) 위의 책, 220쪽.

21) 위의 책, 312쪽.

22) 위의 책, 351쪽.

고 간혹 ‘너’는 ‘그대’라는 높인 말로 대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너’라는 대상에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아의 극복의지를 각성하게 하거나 사유케 하는 대상으로서의 ‘너’가 존재하지만 분열된 자아의 통합을 갈망하는 시선과 또 다른 ‘나’로 투영된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너’를 보는 시선에는 설움에 가득 찬 자아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이는 ‘너’로 투영된 ‘나’를 통하여 때로는 상련의 시선으로 때로는 표피적 탐욕과 허욕에 들뜬 자아를 날카롭고 비판적 시선으로 보려는 의도이다.

<풍뎡이><sup>23)</sup>는 공허하고 허망한 현실적 삶에서 지쳐가는 자아를 투영한 작품이지만 김수영 시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생활난>만큼 활발히 주목받지 못한 시이다. 그러나 이 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가 ‘나’의 분리 양상을 최초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시인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와 더불어 통렬한 자조와 비판을 외부적 원인에서보다 내적 원인에서 찾으려 시도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전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후반기 시 <밤>(1958)<sup>24)</sup>을 보면, “부정한 마음”을 자아로부터 추출하여 ‘너’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비판하는 지점까지 보여준다. 즉 어두운 ‘나’의 이면을 깊이 통찰하여 자기갱신을 수행하고 극복과 좌절의 맥락을 나의 또 다른 이면으로부터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풍뎡이>는 의미가 있다.

너의 앞에서는 우둔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좋았다  
백년이나 천년이 걸코 긴 세월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사랑의 테두리 속에 끼여 있기 때문이 아니리라  
추한 나의 발밑에서 풍뎡이처럼 너는 하늘을 보고 운다  
그 넓은 등판으로 땅을 쓸어가면서

23) 위의 책, 37쪽.

24) 위의 책, 150쪽.

너가 부르는 노래가 어디서 오는 것을  
너보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추악하고 우둔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너도 우둔한 얼굴을 만들 줄 안다.  
너의 이름과 너와 나와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질 때까지  
소금 같은 이 세계가 존속할 것이며  
의심할 것인데  
등 등판 광택 거대한 여울  
미끄러져가는 나의 의지  
나의 의지보다 더 빠른 너의 노래  
너의 노래보다 더한층 신축성이 있는  
너의 사랑

- <풍뎡이>(1953)

김윤배<sup>25)</sup>는 철학적 성찰이 보이는 이 시의 중요성은 속도에 대한 그의 수용적 태도라고 보고 “하늘을 보고 우”는 ‘너’는 근대이거나 근대적 삶이라고 보았다. 즉 ‘너’는 ‘근대’로서 그의 의지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등판으로 땅을 쓸어가며” 함께 “우둔한 얼굴을 만들 줄” 아는 ‘너’는 근대라고 보기 어렵다. “추한 발밑에서 풍뎡이 처럼 우는 너”와 “등판으로 땅을 쓸어가는”는 모습은 흡사 ‘그림자’와 상통한다. 현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현실과 타협하려하는 지친 자아는 스스로도 추하게 여기는 대상이다. 그 추한 자신의 발밑에 땅을 쓸어가며 풍뎡이의 등짝처럼 둥글게 존재하는 이 그림자는 기실 ‘나’와 분리되지 않는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이다. 이는 근대적 삶에서 그 의지가 꺾여 가는 ‘나’와 그를 극복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면의 고민을 토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수영의 시를 중점적으로 해석한 오봉옥은 김수영 시의 특성은 치열함과 새로움이 가장 돋보이는 시라고 하며 이 시가 그의 자아에 대한 치

25) 김윤배, 『온 몸의 시학, 김수영』, 국학 자료원, 2003, 91쪽.

열한 고뇌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았으나 ‘너’의 존재는 확연히 밝히지 못하였다.

‘바로 보는 일’은 현실과의 대결에서 주체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방법<sup>26)</sup>이다. 그러므로 이 시에 존재하는 설움의 정서는 자아가 현실과 어긋나는 지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지각하는 과정으로 ‘너’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시인이 자신을 의식한다는 것은 자기의식 안에서 하나가 아닌 둘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수영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오는 긴장을 끝없이 시 안에 끌어들이고 그것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형상화하였는데 이 시는 그러한 면에서 시인의 자아가 잘 드러난 작품으로 보인다.

모더니즘은 자본주의적 근대를 모태로 하면서도 그에 대한 염증과 저항을 양식으로 삼는 예술이념<sup>27)</sup>이다. 이 저항은 때로는 자아의 무기력함을 인식시키며 때로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심어주기도 할 것이다. ‘바로 봄’은 힘든 저항이다. 그러므로 타협하려는 ‘나’가 공존하는 것이다. 즉 “추한 발밑에서 풍뎡이처럼 하늘을 보고 우는”, “우둔한 얼굴”을 하고 있는 ‘너’는 ‘나’의 또 다른 내면이다.

“우둔한 얼굴을 만들 줄 안다”는 의미는 어떤 모습으로든 밝은 모습으로는 형상화될 수 없는 무채색의 시꺼먼 ‘그림자’의 속성을 잘 대변한다. “내가 추악하고 우둔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너도 우둔한 얼굴을 만들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이 그림자가 거울의 속성처럼 나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다. 조사 ‘도’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시인은 ‘나’가 “우둔한 얼굴을 하”자, “너는”이 아니라, “너도” 똑같이 “우둔한 얼굴을 만들 줄”안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즉 투명하게 비치는 거울 안의 ‘너’가 아니라 “추한 내 발밑에” “땀을 흘려 가며” 나를 좇는 나의 ‘그림자’인 것이다.

26) 여태진, 『김수영의 시와 언어』, 월인, 2005, 239쪽.

27) 위의 책, 309쪽.

‘너’가 풍뎅이의 등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은 둥글 것이다. 발밑에 둥글게 존재하는 그림자는 태양이 정중앙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는 견뎌야 하는 현실의 극한 고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피적 욕망이 함께 공존하는 지점에 자아가 서 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너가 부르는 노래가 어디서 오는 것을 너보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자아의 정신적 열망을 드러낸다. 그늘로 숨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미끄러져 가는 나의 의지”가 내면의 ‘너’로부터 오는 노래 소리로 인해 도피에서 극복의 차원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소금 같은 이 세계가 존속”할 때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망가려는 ‘나’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너’의 분리는 외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더 긴밀한 관계로 상승한다. 즉 미끄러지는 ‘나’의 의지가 언제까지 ‘너’를 붙들고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 기저에는 더 치열하게 또 다른 자아인 ‘너’와의 사랑을 호출하기 때문이다.

“등 등판 광택 거대한 여울”은 열기로 들끓는 두려운 현실과 나의 고향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설움과 고통으로 견뎌야 하는 현실의 태양이 머리 정중앙에 있다면 둥글게 엮드려 있는 풍뎅이의 등판은 열기로 들끓어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려는 의지는 미끄러지듯이 떠나가려 하지만 내가 얼른 떠나려고 해도 ‘너’는 ‘나’의 도피를 더 빨리 눈치 채고 ‘나’를 따라온다고 말한다. 이것이 그림자의 속성이다. 즉 ‘나’와 ‘너’는 헤어질 수 없는 영원한 공생관계인 것을 의미한다.

김수영은 그의 정신의 극복 의지를 이 ‘그림자’라는 매개물을 통하여 강하게 토로한다. 이는 곧 자아에 대한 사랑이며 ‘나’와 ‘너’는 결국은 하나로 일치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너’를 경유해서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그림자’라는 ‘너’를, ‘나’로 투영시켜 놓음으로써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 나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에 대한 투영은 <너를 잃고><sup>28)</sup>에서도 드러난다.

너가 없어도 나는 산단다  
억만 번 너가 없어 설위한 끝에  
억만 걸음 떨어져 있는  
너는 억만 개의 모욕이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꽃들  
그리고 별과도 등지고 앉아서  
모래알 사이에 너의 얼굴을 찾고 있는 나는 이제  
너가 없어도 산단다

(중략)

이 영원한 숨바꼭질 속에서  
나는 또한 영원히 너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날을 기다려야 하겠다  
나는 억만무려(億萬無慮)의 모욕인 까닭에.

- <너를 잃고>부분(1953)

이 시에서 ‘너’는 ‘나’에게 있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으나 기실 너 없이 살 ‘나’의 존재는 희박하다. 시인은 “영원히 너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날”을 “기다려야 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이 ‘기다림’이라는 말을 통하여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해야 하는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너’와 ‘나’는 끝 연에 가서 같은 자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즉 ‘너’도 “억만개의 모욕”이며 ‘나’ 또한 “억만무려의 모욕”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숨바꼭질’이 주는 의미는 그 본질이 서로 ‘찾기’에 있다. 따라서 ‘나’와 ‘너’는 ‘영원히’ 찾아야 하는 대상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모래알 속에서도 ‘너’를 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모욕’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더 드러

---

28) 김수영, 『김수영전집1』, 2004, 47쪽.

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모욕’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찾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너’를 통한 자아의 투영은 <더러운 향로><sup>29)</sup>에도 드러난다.

길이 끝이 나기 전에는  
나의 그림자를 보이지 않으리  
(중략)  
검은 철을 깎아 만든  
고궁의 흰 지댓돌 위의  
더러운 향로 앞으로 걸어가서  
잃어버린 애아(愛兒)를 찾은 듯이  
너의 거룩한 머리를 만지면서  
우는 날이 오더라도

철망을 지나가는 비행기의  
그림자보다는 훨씬 급하게  
스쳐가는 나의 고독을  
누가 무슨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잡을 수 있겠느냐  
향로인가 보다  
나는 너와 같이 자기의 그림자를 마시고 있는 향로인가 보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원인을  
네가 지니고 있는 긴 역사였다고 생각한 것은 과오였다

길을 걸으면서 생각하여 보는  
향로가 이리하고  
내가 그 향로와 같이 있을 때  
살아 있는 향로  
소생하는 나

---

29) 위의 책, 65쪽.

덧없는 나  
(중략)  
더러운 것 중에도 가장 더러운  
썩은 것을 찾으면서  
비로소 마음 취하여 보는  
이 더러운 길.

- <더러운 향로>부분(1954)

이 시에서 ‘나’는 향로와 같이 “자기의 그림자를 마시고 있는” 자아이다. 겉으로 드러난 향로는 비록 더러울지라도 오래고 오랜 마음이 깃들어 있던 나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이며 그러한 향로인 ‘너’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살아 있는 향로”와 더불어 “소생하는 나”로 발견되는 것이다.

“길이 끝나기 전에는 나의 그림자를 보이지 않으리”라는 자아의 극복의지는 “비행기의 그림자보다 빠른 나의 고독”처럼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너’인 향로와 ‘나’는 함께 일치되기 때문에 그 극복의지는 한층 더 강화된다. 즉 이 둘의 일치가 현실을 견뎌내고 극복하는데 중요한 효용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너’의 호출은 김수영의 시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김수영 시에서의 ‘너’는 시 속에서 대립의 지점에 있거나 혹은 일치나 자아의 투영으로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김수영의 정신적 지향을 드러내는 데 있다.

## 5. 나가기

김수영의 시는 자아와 대상과의 대립을 극복하고 또 해체되려는 정신의 일치를 추구한다. 사전적으로 한국어 ‘너’는 친구나 손아래 사람한테 쓰는 이인칭 대명사이다. 즉 존칭어가 아니다. ‘나’에게 비치는 ‘너’는, 때문에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수영

이 자아와 대립되는 대상들을 ‘너’라고 부르는 이유는 때문에 명확하다. 현실내부에 존재하는 ‘너’는 ‘나’의 정신적 사유를 방해하지만 함께 일치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가 시에서 ‘너’에게 시선을 주는 이유는 그러므로 자아의 정신과 당면한 시대를 사유하도록 협력하는 대상이다.

현실적 세계와 자아가 구성한 그림 사이에서 ‘너’라는 존재는 대립을 통해, 혹은 ‘나’가 추구하는 정신적 지향의 대상이 되어, 사유케 하는 공간의 여지를 제공한다. 여기에 김수영의 정신적 지향이 존재한다.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나’와 대립되는 개체인 ‘너’를 통하여 바라보려고 시도한다. 그 ‘너’의 내부에는 그가 공감되지 않거나 욕망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나 ‘나’는 그것을 대립된 채로 놔두지 않고 함께 고뇌하기를 시도한다.

‘너’라는 존재는 해체되려는 주체의 정신적 토대이다. 즉 현실 속에 ‘너’라는 대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려 ‘나’의 정신은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의 존재는 ‘나’와 대립되는 지점에 존재하고 투영되기도 하지만 이는 현실과 ‘나’와의 간극을 좁히고 극복하려는 시인의 의도적 제시물이기도 하다.

‘나’와 ‘너’의 간극에는 현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현실’은 ‘나’가 비판하고 욕망하는 지점에 서 있다. 또한 ‘너’는 내가 비판하는 현실과 조금은 더 가까이 존재한다. 그 현실 속에서 소외된 ‘나’는 ‘너’를 경유해서 ‘나’의 현실극복을 도모한다.

김수영의 ‘나’와 ‘너’의 존재는 전기, 후기 시 전역에 걸쳐 존재한다. 비록 후기로 들어 갈수록 ‘너’로 지칭되는 시가 그 대상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경향을 보일지라도 김수영 시에서 ‘너’라는 대상이 항상 존재했다는 것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너’라는 시인의 시선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당대의 현실에 당면한 시인이 ‘너’를 통해 본 현실이, 그의 정신적 다짐이 무엇인가 더 확장하여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문헌

김수영, 『김수영 전집 1』, 민음사, 2004.

### 2. 국내 문헌

김명인, 『김수영, 근대를 향한 모험』, 소명출판, 2003.

김수영, 『김수영 전집2』(산문), 민음사, 2004.

김상환,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 민음사, 2000.

김윤배, 『은 몸의 시학, 김수영』, 국학자료원, 2003.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2.

\_\_\_\_\_, 『현대시의 방법론과 모더니티』, 새미, 2009.

김혜순, 『김수영-세계의 개진과 자유의 여행』,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문학사와 비평 연구회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_\_\_\_\_,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문광훈, 『시의 희생자 김수영』, 생각의 나무, 2002.

박윤우, 『서정시와 대화적 상상력』, 서정시학, 2009.

여태천, 『김수영의 시와 언어』, 월인, 2005.

오봉옥, 『김수영을 읽는다』, 랜덤하우스중앙, 2005.

유종오·최동호, 『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작가, 2005.

이승규, 『김수영과 신동엽』, 소명출판, 2008.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9.

\_\_\_\_\_, 『모더니즘의 비판적 수용』, 작가, 2002.

\_\_\_\_\_, 『해체시론』, 새미, 1998.

장석원, 『김수영 시의 수사학』, 청동거울, 2005.

- 최동호, 강웅식 외, 『다시 읽는 김수영 시』, 작가, 2005.  
최동호, 『삶의 깊이와 시적 상상』, 민음사, 1995.  
\_\_\_\_\_,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한국현대시학회, 『20세기 한국시의 사적 조명』, 태학사, 2003.  
한명희, 『김수영 정신분석으로 읽기』, 월인, 2002.  
황정산, 『김수영』, 새미, 2003.

### 3. 국외 문헌

- 가라타니 고진, 『근대문학의 종언』, 조영일 옮김, 도서출판b, 2008.  
데이비드 호크스, 『이데올로기』, 고길환 옮김, 東文選, 1996.  
마단 사립,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조형교육, 2005.  
발터벤야민, 『언어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길,  
2008.  
\_\_\_\_\_,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2008.  
슬라보예 지젝,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 김상환, 홍준기, 김  
선욱, 김범수, 변문숙, 김서영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5.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천병희 옮김, 문예출판사, 2004.  
\_\_\_\_\_, 『시학』, 김재홍 옮김, 안암신서13,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Abstract>

Spiritual tendency of Kim, Soo-Young which  
is exposed by 'You'

Kim, Hee-Joo

This research article is to find the meaning of 'you' which is often shown in the poem of Kim, Soo-Young. Although the current research on his is classified into modernism of the earlier part, and participating poem of the later part chasing the procedure of changing and looking for spirit which encompassing the whole poem, this is endless personal investigation about 'self' in his poem whether it is earlier poem or later poem.

Moreover, there exists 'you' which refers to 'self'. This 'you' is revealed as the existence of the 'rebellion' or the 'incompleteness', but the existence of 'you' is eventually revealed from his destiny and experience in the modern society. As the the gap between reality and ideal is getting larger, the inside of his disclosing the admission of consistency should result in the dissolution of his identity.

Kim, Soo-Young often reveals the overcoming the dissolution through the individual and restriction of the individual the feature of which is disclosing an aspect of the limit of Korean modernism which has been confined to formalism lacking in criticism.

It is impossible to exist without the integration of you and self in reality. Poets try to find the clues for negotiation by the connection to the world criticizing the reality, inspecting and advocating the self.

Therefore, the existence of ‘you’ is concerned with the existence itself, not with the communication in the poet's life.

The self corresponding to ‘you’ in <A struggle against hard life of Confucius>, one of his early poem shows disappearing of spirit of the self. The ‘you’ on one point of his view he gives is the ‘you’ who makes it possible to reach a point of the shape pursuing his spiritual will.

<A beetle> failed to get attention compared with the above mentioned <A struggle against hard life of Confucius> despite of extensive research on his poem. Self in this poem is looking at ‘you’ which is the self inside. ‘You’ with the intension to overcome inside, which is separated from the self desire to be integrated.

He expresses the intension to overcome his spirit using the ‘shadow’ in a strong tone. This is the affection to his ‘self’. he shows that ‘you’ and self will be integrated as one by way of ‘you’. He takes ‘shadow’ as another poetic self and shows that the separation is a process to proceed to complete oneness.

He puts an emphasis on how strong his will to overcome himself by figuring the shadow, the ‘you’ which is inseparable existence. It is meaningful to look at the view of the poet seriously and to perform expansive study what the reality visualized through ‘you’ and what the his spiritual resolution was.

Key Words : Kim, Soo-Young, You, one's gaze, realistic, modernism, self, modern civilization, modern poetry, poetic self, A Struggle against hard life of Confucius, A hare, A trick of the moon, A beetle, Losing you, A shabby cen-ser,

spiritual tendency

- 논문접수 : 2010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0년 4월 13일
- 게재확정 : 2010년 4월 15일